광주·전남 7개 대학 '산학연 협력' 지역발전 이끈다

전남대·조선대·광주대·동신대·호남대·목포대·목포해양대

교육부 '일반대 링크 3.0' 선정…인재육성부터 채용까지 상생

조선대, 광주대, 동신대, 호남대 등 광주·전남 7개 대학이 교육부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일반대 링크 3.0)에 선정됐다.

2일 조선대, 광주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일반대 링크 3.0 사업 선정 대학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의 산학연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다. 대학이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대학에서 양성한 미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채용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상생 발전의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이다.

올해 총 30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선정 대학은 2027년까지 최대 6년간 지원을 받는다.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 등 세 유형으로 나뉘어 총 76개교가 선정됐다.

조선대는 산업계 및 미래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수요맞춤성장형'에 선정돼 2022년부터 6년간 2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4대 특화분야 바이오헬스, 스마트(디지털) 융복합, 저탄소 녹색(그린), 인간중심 서비스 비즈니스 중심의 창의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지역 밀착형 ICC(기업협업센터)허브 구축을 통한 브랜드 가치제고를 이어나간다.

전남대는 기술혁신선도형으로 우선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6년간 최대 33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남대는 기술혁신을 이끌고 미래가치를 창출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술혁신선도형' 유형에 선정됨에 따라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대는 6년 동안 매년 평균 40억 원을 지원받아 산업계와 미래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수요맞춤성장형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대는 교육부와 함께 신산업·신기술 분야 미래인재 양성과 공유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산학연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산업계 수요 기반 및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고 산학연계 공동연구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동신대는 오는 2027년까지 24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산업계와 미래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수요맞춤성장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DX-4PLUS 산학협력'을 선도 모델로 구축, 산학협력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지(地)·산(産)·학(學) 공유·협업을 통한 산학협력 디지털전환 HUB 구축,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국내외 공유·협업 생태계 확산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AI특성화대학인 호남대학교는 2027년까지 6년간 24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산학연협력 거버넌스 대학'으로서 미래산업에 대비한 인재 양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산업 기반 융복합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기업협업센터를 고도화해 다양한 산학연 연계 브랜드화를 통해 학생들의 취·창업과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게 된다.

이밖에 목포대와 목포해양대는 각각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 사업에 선정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예방 위주 미래지향적 감사 패러다임 변화"

전남도교육청, '학교자율 종합감사' 본격 시행

전남교육청이 기존의 교육청 주도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 스스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본격 시행한다.

전남도교육청의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각 학교가 자체 감사반을 꾸려 스스로 감사 시기·방법을 결정하고 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자율 점검표를 활용해 학교 업무 전반을 점검·시정·개선하는 방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초·중 6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감사 효과성' 측면에서 87.8%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올해는 22개 시·군 지역 종합감사 대상 공립학교 중 13개 희망 학교(유1, 초9, 중3)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한 감사 일정 조정, 감사자료 작성 생략, 공개된 점검항목의 연중 수시 점검·보완 등이 가능해 기존 종합감사 준비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특히 학교 구성원 중심의 책임있는 학교 운영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TF 구성·운영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감사규칙 개정 등 학교자율 종합감사 시행을 위한 단계적 준비를 진행해왔다.

김성인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종래의 지적·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예방 위주 감사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이를 통해 교육활동의 자율적 진단 및 개선 기회가 마련되고 학교 교육력 제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광주여대·호남대, 교육혁신 교류 협력

교육과정 공동연구·연계, 지역 상생 프로그램 개발 등

광주대 김황용(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과 광주여대 정성일(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호남대 송창수(왼쪽에서 네 번째)대학혁신사업단장 등이 지난 29일 광주대 행정관 교육혁신지원실에서 대학혁신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 호남대학교가 대학혁신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2일 광주대에 따르면 김황용 광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과 정성일 광주여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송창수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장은 이날 광주대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각 대학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공동연구·연계 운영, 지역 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학혁신 관련 각종 정보 교류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황용 광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 경쟁보다 각 대학이 장점을 공유하고 발전방안 등을 모색해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일 광주여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교육혁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며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창수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장은 "각 대학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대학과 지역이 발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메타버스 활용 지역인재 양성 앞장

광주북구청과 'HiVE' 사업 추진… 공청회 개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학교 인프라를 활용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인재 육성과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에 나섰다.

동강대는 지난 29일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metaversity.camp'에서 '동강대학교 하이브(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공청회는 광주북구청과 함께하는 '2022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주관의 하이브 사업은 전문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청년인재 지역정주를 위한 특화분야 인력 양성 ▲지역기반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한다. 사업 공모 선정 시 3년 간 총 45억원(국비 90%+지자체 10%)이 투입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본촌산업단지 유재록 전무, GIST 발전재단 송경종 사무국장, 동강대 미래평생교육처 조남철 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민숙 총장은 "동강대의 인적·물적 자원과 평생 직업교육의 역량을 지역사회 수요에 맞게 활용하고 광주 북구와 상생방안을 모색해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